

Flesh & Blood (John 6:52~58)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rselves. He who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

Today's chapter begins with the story of the miraculous feeding. A very large crowd had followed Jesus across the Sea of Galilee because they had seen Him heal the sick. A little boy gave Jesus 5 barley loaves and 2 fish, and with that He fed all 5,000 people, leaving 12 baskets of leftovers. The crowd realized His power and wanted to make Him king, but Jesus perceived their intentions, and escaped to a mountain alone. Everyone was looking for Him, even His disciples, who finally found Him walking on water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ward their boat that was already three or four miles offshore. In the morning, the crowd followed and found Him on the other side of the sea. They began asking Him questions, and Jesus began answering them. The Jews in the crowd didn't understand His answers; they didn't like His preaching. They started grumbling and arguing with each other over what Jesus was saying.

Jesus talked about His sacrificial death on the cross. He told the crowd,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out of heaven; if anyone eats of this bread, he will live forever; and the bread also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is My flesh"(v. 51). Well, the Jews in the crowd couldn't handle this information. They started wondering, "How can this man give us His flesh to eat?" Jesus explained the secret,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rselves" (v. 53). Sadly, this wonderful truth only confused them more. Does it trouble you? So many people love Jesus and want to follow Him; they even believe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Some even have experienced or benefited from His miracles, like the crowd above. Yet, they still don't grasp the significance of His flesh and blood. They really don't think Jesus is the Messiah.

Today is Holy Communion day. We are going to partake in eating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ing His blood. Do you have any arguments? Do you really believe in this ritual? Jesus said, "He who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on the last day"(v. 54). Can you see how important this Holy Meal

actually is? The flesh and blood of Jesus brings eternal life. The flesh and blood of Jesus raises the dead to life. Come on people, this is the place where your faith finds nourishment.

Before Jesus discussed the Lord's Supper, He explained to the crowd that He had come from heaven(v. 51). Do you believe it? Do you believe that Jesus existed in heaven before His birth? Do you believe that He is the Son of God, who died on a cross for your salvation? My friends, today's Bible verses are asking you do you believe it? Does Jesus really exist in your life, or is He just part of your imagination? He said, "For My flesh is true food, and My blood is true drink"(v. 55). Is His flesh and blood true to you? Is His flesh and blood really necessary for you to have eternal life?

Let's take this a little deeper. Jesus said, "He who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abides in Me, and I in him"(v. 56). Amen. Do you live in Jesus? Does He live in you? He said,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he who eats Me, he also will live because of Me"(v. 57). The reason Jesus came, His purpose, was to give us life. Only He is the Savior. Only He has life to give,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Jn. 1:4). Amen. My friends, only in Jesus is there life. He is the life, "For just as the Father has life in Himself, even so He gave to the Son also to have life in Himself"(Jn. 5:25). Amen. He is the Savior. The power, purpose, and grace of God was granted to us in Christ Jesus from all eternity, "but now has been revealed by the appearing of our Savior Christ Jesus, who abolished death and brought life and immortality to light through the gospel"(2 Tim. 1:10). Amen.

Jesus' flesh is real food, and His blood is real drink. They are the elements God has chosen to use for the gift of eternal life. Your personal faith is necessary to receive God's gift in Christ Jesus. Are you willing to join now in the Lord's Supper? Come, all who believe that His flesh and blood will raise you on the last day, and make you live now and forever. Amen. 🌿

살과 피 (요 6:52~5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김성관 목사

예수의 주변에 있는 자들

오늘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6장은 놀라운 기적으로 무리를 먹이신 이 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무리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를 따라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예수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렸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오 천 명을 먹고 열 두 광주리에 담을 정도로 남기셨습니다. 군중들은 주님의 능력을 깨달았고, 주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셨고, 그들을 떠나 홀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그곳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한밤중에 해안으로부터 3~4마일 떨어진 바다 한 가운데서 자신들의 배를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예수를 따라다녔던 무리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 질문하기 시작했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주님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뎠거리기 시작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놓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살과 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당할 희생적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51절). 군중들 속에 섞여 있었던 유대인들은 주님의 교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52절). 예수께서는 말씀에 숨겨진 비밀을 설명해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53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진리는 오히려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며,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따르던 군중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경험하거나 유익함을 맛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피와 살의 의미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양식

오늘은 성찬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예식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까? 또는 이 예식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정말 믿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54절). 이 거룩한 만찬이 실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예수님의 살과 피

는 영생을 가져옵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죽은 자를 일으켜서 생명이 있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오십시오. 성찬의 식탁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여금 영혼의 양식을 발견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예수께 대한 믿음

예수께서는 군중들에게 주의 만찬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설명하셨습니다(51절).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것을 믿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단지 여러분의 상상의 측면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55절).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에게 참된 것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그의 살과 피가 진실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유일하신 구원자

성찬에 대하여 조금 깊이 있게 다루어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56절). 아멘, 여러분은 예수 안에 계십니까? 또한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57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요 5:26). 아멘,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딤후 1:10). 아멘.

믿음으로 나아감

예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그의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사용하신 선전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금 주의 만찬에 진정으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아오십시오. 주의 살과 피를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팀



도미니카를 다녀와서

장용희 (집사, 16교구 6지역)



멀고도 가까운 여정이었다. 그동안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팀장으로서의 책임과 부담감 때문인 것 같다. 준비기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를 하였지만 아직도 믿음이 적어서 일까? ...물지언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인가! 147개 팀 중 첫 번째 팀이다. 보니 교회의

기도와 성원을 한 몸에 받고 30시간 만에 도미니카에 도착했다.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신사님 두 분과 집사님 한 분의 건강을 염려한 것은 한달 나이의 기우였다. 도미니카 사람들이 아무런 회교도 장래 계획도 없이 먹고 즐기는 데만 열심을 다하여 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영혼들이 안타까워지처럼 달라고도 않았는가. 도미니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신 것을 모른다. 그저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전하여야 한다. 독생자 예수께서 나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을 믿어야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그러나 그들은 무엇인가 현실적인 뉘나 돈을 원하였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기니와 오직 나 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복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은 분명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다. 돈이나 물질은 잠깐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전하는 대원들을 볼 때,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였다.

현재 지역중인 선교팀

팀	팀장	선교지	일자
11교구 2지역	장철환	인도	4월 29일-5월 7일
12교구 5지역	정원근	카자흐스탄	4월 29일-5월 9일
17교구 13지역	진학래	몽골	4월 28일-5월 9일
6교구 1지역	이철호	인도	5월 1일-5월 9일
7교구 6지역	송두섭	방글라데시	5월 1일-5월 8일
7교구 7지역	이인광	불가리아	5월 1일-5월 10일
12교구 1지역	강태영	인도	5월 1일-5월 12일
12교구 3지역	함철주	인도	5월 1일-5월 12일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22

작년에 채코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통역비가 너무 비싸 통역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통역없이 일대일 전도를 하다보니 '이것이 바로 진짜 전도구나' 싶었습니다. 내 짧은 언어로 전한 복음에 그들이 반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로 하면서부터 일대일 전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팀원들에게 일대일 전도를 생각하면 언어훈련을 정말 잘 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모든 팀원들이 매우 열심히 하셨습니다. 언제나 많은 분들이 전도지를 다 외우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위임 목사님과 지역장들과의 면담 때,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을 1장씩 읽고 느린점을 한줄이라도 써보라고 하셨습니다. 한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하고 해보니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시도 팀원들과 함께 매일 아침 경건회 시간에 사도행전을 3장씩 읽고 나눌 예정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을 전하고 고생하는 것, 낙심되는 순간들 등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겪게 될 일들이 다 나와 있어 많은 은혜와 용기를 받습니다. 카자흐스탄 카라간다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 지역으로 일대일 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경찰들의 방해가 예상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 끝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정원근
12교구 5지역장

하나님의 열심

지난 주 몽골팀에서 성수, 장안평 전도집회를 했다. 한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막상 토요일이 되자 모든 상황이 어려워졌다.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전도하기가 힘들었다. 찬양팀이 타고 오려면 차는 방전이 되어 늦어졌다. 집회 시작 시간이 다 되었지만 몽골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았다. 빗속을 뛰어 다니며 마음속에 조급함이 생겼다. 모든 준비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마음속에 불안과 절망감이 찾아왔다. 그런데 연이어 찬양팀이 도착했고 빗속에도 불구하고 몽골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감사한 것은 참석한 인원의 절반이 전도되어 온 친구였다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사랑의 포옹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도집회를 마치며 들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적인 열심만 믿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낙담하는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였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다.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만 바랄으로써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욱 통성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가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급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민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 9:7).

(윤정훈 전도사)

카자흐스탄 카라간다(4월 29일-5월 9일)

1. 카라간다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지역으로 전도를 나갈 때 주님이 예정하신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2. 대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무대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3. 현지에서 도와주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영정섭 기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김 장 용 (신촌 가정부)



올해 우리 가정은 새벽예배, 가정예배, 성경통독을 실천하려고 한다. 이 세 가지 사항은 작년도에 계획했지만 온전하게는 실천하지 못했다. 물론 올해도 작심한 지 4개월이 되어가지만 온전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확실히 작년보다는 진보가 있다.

새벽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은 생각을 떨치고 일어나는 일이 제일 힘들다. 하지만 새벽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물로써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도전을 받는다. '그 동안 내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면 '내가 신앙의 경주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었구나.' 하고 반성을 하고 나날 다한 번 주스르케 된다. 1월부터 창세기 읽기를 아내와 독같이 시작했는데, 서로 얼마만큼 읽었는지 확인하면서 보다 더 많이 읽게 된다. 성경을 경경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영적 훈련들을 하다보니 점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부는 모습도 거의 없어졌고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내가 예써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다.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은 더 잘 좋은 고기를 찾기 마련이고 양질의 고기 맛을 본 사람은 그 다음에도 그 양질의 고기 맛을 찾을 것이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도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길을 맛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나면 더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려고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이시기 때문이다.

점점, 우리는 복음의 사도 ⑥

많은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가족과 각오를 풀어놓는다. 그들의 강도와 각오들을 통해 복음의 소명을 다시 돌아보고 좀 한 해의 단기선교를 계획해 보자.

단기선교를 다녀오기 전에는 선교란 어떤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선교를 다녀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팀은 작년 12월 28일부터 올 1월 7일까지 인도 롬바이에 갔다. 우리는 대학가를 위주로 사역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헌디가 아닌 영어로 준비했었는데, 막상 가보니 대학교에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대학 안으로 쉽게 들어보내 주지를 알아 많이 애뒀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바꾸어 3개의 조로 나누고, 축회전도와 노방전도를 실시했다. 사역 후에는 매일 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루 동안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나누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워 더 열심히 사역에 임하게 했다.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팀원들 모두 잘 참여주고 서로 협력해서 감사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선교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복음을 듣고 영접되까지 하고 주님이 구주이심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질책했다. 단기선교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 감사하다.

다음에 갈 때 바라는 게 있다면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선교에 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회와 노방전도 등에서 복음 전할 때 꼭 필요한 말들을 경구별로 많이 연습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또, 좀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팀원을 좀 더 빨리 구상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충분했으면 한다.



구세훈 (대학부)

(선전주 기자)

나의 찬양, 나의 예배

김 지 호 (핸드벨 단원)

주일학교 같은 반 친구가 핸드벨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형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핸드벨 실에 같이 갔다가 특별한 음악적 재능 없이도 핸드벨 단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예전에는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핸드벨을 시작할 수 있는 찬양할 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핸드벨 단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부족한 제가 핸드벨 단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핸드벨 연주자 찬양가 아닌 그냥 연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 아닌 찬양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대화가 많이 필요해요. 특히 가사를 잘 모르는 찬송은 더욱 그래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연주자 마음의 고백이 되면 큰 은혜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도 무겁고, 마음만큼이나 ভাল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핸드벨 단원으로서 예배의 감동을 말한다면 찬양대의 찬양을 가까이에서 듣는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듣는 것은 핸드벨만 가능하거든요. 핸드벨 단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큰 회중이 다같이 찬양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말씀 읽고, 설교 들으며 아멘할 때 가장 감동이 됩니다. 다같이 일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과 또 그 가운데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음악적으로도 부족하고 영적으로도 부족합니다. 특히 기도도 준비하지 못할 때 이런 부족함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이런 저에게도 예수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배 놓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국 무의미하게 다가오거든요.

토기장이와 토기

성경과 윤리

우리는 공식적으로 성경이 아닌 인간 중심의 교육을 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성경과 주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윤리에 대해서 배운 바는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까지도 혼들 수 있다. 학교에서는 윤리란 '인간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가르친다. 이런 교육 때문에 윤리적인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며 윤리적이 아닌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사고가 우리 안에 자리잡았다. 심지어 참 선도인가 아닌지도 윤리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성경은 선이란 '인간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 (고전 1:2)이라고 말한다.

거룩과 윤리의 관계

'거룩'과 '윤리'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보통은 '윤리=올바름'의 공식을 적용시키지만 세상이 윤리를 '인간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정의한다면 성경은 거룩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선도가 마땅히 취해야 할 조건' (요 17:17,19)이라고 정의하는 바, 어떤 궁극적인 것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둘은 같다. 또한 윤리적인 사람의 겉모양과 거룩한 사람의 겉모양은 서로 비슷하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며,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 진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거룩과 윤리의 근본적 차이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윤리적인 인간은 자기 스스로 윤리적 인격체가 되려 한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자신은 근본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여진 사람들' (요 17:22)이다. 그러므로 윤리적 인간들이 겸손해하는 것은 '모양으로서의 겸손'이지 실제로 자신들의 무력함과 무의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케 된 자들은 주의 은혜를 입은 것이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위에 있어서는 다른데, 윤리적인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할 뿐 다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그 행위를 통해서선 영원할 수도 완전히 선해질 수도 없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들은 눈에 띄게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요 17:18,20). 이 행위는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증해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윤리적 모양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 윤리가 우리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미처 보지 못한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육에 의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이 의식을 무시하지 못하면 올바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혹은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잣대와 인간 중심의 지식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 (골 2:20).

(권오세)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1. 특별히 사모하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찬송은 133장 '어찌же나 오실나'입니다. 이 찬송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실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수에 안고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네'라는 3절의 가사와 과거와 오늘 그리고 영원 무궁히 변치 않고 사랑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후렴부의 가사가 항상 나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마처럼 때론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베드로보다도 더 많은 허물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용서하시고 조용한 가운데 저에게 주님의 확신을 주시며,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2.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릴때부터 가족 모두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 잠시 의심하고 갈등한 적이 있었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믿게 된 그 순간 이후로부터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당시(고등부 시절) 제가 주님께 받은 달란트는 목소리라고 생각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3.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마음 속에 항상 간직하여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 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골 2:20).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 기도제목은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을 널리 보급하라는 사명을 제 마음 속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성주 집사
심ლო만 찬양팀 줄로이스트
(임해원 기자)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



2. 정밀검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 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골 6:8).

이 말씀에서 바울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육체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바울 뿐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것은 흑백 논리라고 하더라도 옳은 말이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영의 세계를 정말 알고 있다면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가는

가 천국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머무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참석 여부로 구분합니까? 선행의 정도로 구분합니까? 옳으로 신인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나눕니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극단적인 척도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구원을 준다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사람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명료하고 정확한 검사입니까? 그러나 이 두 부류를 구분하는 데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세우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행한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고백입니다. 본래 사람은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인정하면 인간은 아무런 공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았으니 이제 더 높은, 혹은 구제적인 것을 찾아보려고 말합니다. 그러해서 인간적인 생각들과 방법들을 십자가 안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들어가는 순간 십자가는 변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으며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알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십자가는 모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동강령이나 덧붙인 실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강조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어야 할 내가 십자가로 인해 산 것과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야 함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함이 없이는 창세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 의미를 발견하고 십자가가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이 되든지 아무것도 아니게 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상태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전필)

다음 주일 찬송

282장 "유월절 때가 이르매"

초기 한국 교회의 창로로 찬송가 (한성시)(1905년)에 처음 수록되었던 이 찬송가는 캐나다 창로로 선교사 루세인(영명:그리슨)이 성찬예식을 위해서 한국어로 작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709년 이작자 윌트박사가 성찬예식 찬송가로 작사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작곡자는 헨리 캠벨 윌리엄 박사로 1832년에 작곡하였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주님과 그의 마지막 성만찬을 회상해 보는 찬송가로 우리는 주님이 그대 하신 마지막 언행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6-28).

우리 교회에서는 이 찬송을 부를 때 1,4절은 남자 성도가, 2,5절은 여자 성도가, 그리고 3,6절은 모두 함께 불러왔는데 가사 내용을 볼 때 이는 아주 적절한 찬양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찬양위원회)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민영'성도를 소개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부모님에 의해 잘 알지 못한 채 절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절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고 사단이 나를 계속 쫓아 다니는 것 같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성경의 어언지,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 "너는 내 안에 있다"라는 문구가 보여 교회에 가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교회에 나왔으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모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두 아이도 영아부와 유아부에서 양육받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내 마음 속에 살아 계심을 느끼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새가족부에 새로 오는 성도들의 소개시간이 기억에 남고 성도들이 새로 오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칩니다.

(한숙정 통신원)

새·가·족·을·환·영·하·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35	김정철	3	청년2부 신원(4)	453	최민국	12	청년2부 이소(6)	471	유영민	19	청년2부 유재준(4)
436	강은주	3	청년2부 박연(4)	454	김영선	12	청년1부 김홍배(13)	472	황재준	19	청년2부 이서훈(11)
437	김영범	3	청년2부 박연(4)	455	홍영선	12	청년2부 송준(12)	473	오은주	19	청년2부 문정안(17)
438	민주영	3	청년2부 김경애(4)	456	김지희	12	청년2부 조영자(12)	474	한태현	19	청년1부 윤성영(6)
439	허승훈	6	청년2부 박승(17)	457	송주연	12	청년2부 송준(12)	475	최정민	19	청년1부
440	김현익	7	청년2부 박승(17)	458	정기진	13	청년2부 변정희(12)	476	유종우	19	대학부
441	전혜경	8	청년1부 박승(17)	459	강민기	14	청년1부 박정환(14)	477	하미나	19	대학부 이세영(17)
442	박재경	9	청년1부 소귀(11)	460	강경숙	14	대학부 김정환(14)	478	노정현	19	대학부 김요한(14)
443	전종호	10	고등부 장진영(12)	461	최연우	15	청년2부 진복(17)	479	정관용	19	대학부 이연희(17)
444	최현우	10	고등부 이영희(17)	462	최정민	16	청년2부 최정민(16)	480	노정현	19	대학부 함정호(12)
445	하윤신	10	청년1부	463	한미혜	16	청년2부 최정민(12)	481	김진기	19	대학부 최호진(15)
446	최시훈	10	청년3부 신진준(2)	464	박기호	17	청년3부 송영준(2)	482	정재호	19	대학부 신진현(4)
447	황종국	11	청년3부 권민국(4)	465	신교진	17	청년2부	483	황종국	19	대학부 김성환(17)
448	홍종국	11	청년2부 박연(4)	466	이병철	17	청년2부 장영준(17)	484	이혜은	19	중등부
449	황유정	11	청년1부 권민국(4)	467	김윤숙	17	청년2부 김윤숙(17)	485	박희복	19	중등부 황기영(17)
450	황유정	11	청년1부 권민국(4)	468	민정주	19	대학부	486	이승원	15	청년부
451	황유정	11	대학부 권민국(4)	469	김진기	19	대학부 이태호(19)	487	이승원	15	대학부
452	강한비	11	청년2부 남숙희(1)	470	김기표	19	청년2부 권진경(7)				

* 찬송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같은 심령

유치부 꽃 2반 도지혜 가정



어느 날 저녁시간, 작은아이는 일찍 잠이 들고 큰 딸 지혜와 난 TV앞에 앉았다. TV에선 한국에 표류중인 러시아 여성에 관한 시사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그 여인의 아이는 중병에 걸렸고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다.

나는 같은 아이엄마로서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러시아 여성과 아이의 죽음에 대해 다루는 조국은 난해한 내용과 엄마의 눈물 앞에 지혜는 어리둥절해 했다.

“엄마 그 아기가 어떻게 됐대? 저 아

침마는 왜 온거야?”

“응, 아기가 너무 아팠잖아, 그래서 아기도 엄마도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가셨어!”

“그럼 하나님나라에선 고칠 수 있냐?” “그게 하나님 나라에선 아프지 않거든, 하나님 나라...”

그 때 지혜는 빠르게 나의 입을 막았다.

“알아, 알아.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소 주제가 다르긴 했지만, 지혜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그 나라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난 조금 낯익은 질문을 아이에게 하고 싶어졌다.

“그런데 지혜야, 예수님은 어디가서서 아를 때로 고쳐주지 오지 않고 키 크게 해달라는 지혜의 기도를 들었고도 전화도 안 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아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그것도 몰라? 알한테 갔지! 양 찾았어!”

난 아이의 눈을 보며 소리 없이 아멘을 외쳤다. 지혜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은 세상적인 나이를 무의미하게 한다. 난 성경에 그렇게도 자주 언급되는 ‘어린이와 같은 심령’의 참뜻을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이의 자라나는 신앙에서 우리 부부는 종종 이미 어긋났을지도 모를 우리의 신앙에 재책을 맞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의 위치로 옮겨주시고 또 끊이지 않는 신앙으로 가족을 결속시켜 주시는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

사랑하는 딸, 나의 보배 지혜야!

아빠, 엄마는 세상 그 어느 권귀한 보물보다 우리 지혜가 더 소중하단다. 유치원 친구에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을 보고 은혜 충만케 해주시리라는 믿음을 갖는다. 엄마의 부끄러운 욕심으로 지혜를 아프게 한 적은 없었는지, 또 미쳐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나친 적은 없었는지, 오해 내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 싶구나! 아빠, 엄마는 이제 지혜와 지형이를 위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더 충실히 주안에서 살아갈게! 그렇게 지혜와 지형이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지표가 되는 부모님이 되기로 약속할게! 사랑한다!

(권형일 기자)

믿음의 학교에서

그릇된 사람들(삼하 13장)

본 장에서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12:10-12) 다윗과의 제단이 성취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압논이 저를 연애하나”(1절). ‘연애하다’는 ‘성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사랑을 느끼는 것’의 뜻입니다. 압논과 다말은 이복 남매 지간입니다. 율법에는 엄연히 근친상간과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었지요(레 18:6-18). 압논은 다말 때문에 괴로워하다 병이 납니다. 그는 다말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육체적인 욕망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 5:2).

결국 압논은 친구 요나단의 간고한 계약에 이끌려 다말을 범합니다(3:14절). 압논은 자신의 욕망을 채웠고, 그 후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한 다말을 심히 미워하게 됩니다(15절). 다말은 수치심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치랑하게’(20절) 지냅니다. 페인(廢人)처럼 되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비참한 삶이지요. 다말의 이러한 모습은 죄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의 옛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복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롬 7:5).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21절). 다윗은 세상적 기준으로는 좋은 아버지였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모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우유부단한 처신에 불만을 품은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으로 2년 후에 압논을 살해하고 만듭니다(28,29절). 압살롬이 압논을 살해한 행위는 다말의 수욕(受辱)에 대한 복수이기는 하나 합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압논의 범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율법적인 차원에서 정계되어 왔는데, 압살롬은 자신의 분노한 감정에 따라 압논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을 경우 항상 실패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동정을 얻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 행동은 또 다른 죄악을 낳게 되지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한 자 삼년이라’(38절). 다윗이 압살롬의 죄악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에 대한 정으로 애듯할 만큼 충분한 세월이 지났음을 알려줍니다. “압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로 받았을지니라”(39절 b). 압살롬에 대한 다윗왕의 분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누그러지고 오히려 압살롬에 대한 정이 되살아 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육체의 소욕에 이끌린 범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악이 너를 정하게했고 내 죄를 책한 것이니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의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 의의 말이니라”(렘 2:19).

“하나님이 가요”

유아부 장수찬 엄마

수찬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두 번째 선물이다. 수찬이는 수찬이 누나와는 달랐다. 하나님의 다른 작품이니 당연한 것인데도, 이 간단한 진리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찬양을 많이 배우고 부르고 찬양대에 세우려고 하니 가운 입기 싫다고 누워버린다. 외출하려고 세수시키고, 옷 입히려면 도망 다닌다. 수찬이 누나는 같은 개월 수일 때 혼자 세수하고 옷 입고 현관에서 엄마를 기다려다 했었는데.

술 때 없는 비교로 짜증이 나 있던 나를 감사하게 한 일이 있었다. 24개월 무렵인 것 같다. 교회학교에서 만든 성경 그림을 보여 주며 수찬에게 아빠, 엄마, 누나, 수찬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늘과 땅과 별 모두 네가 좋아하는 사과다 만드셨다고 말해준 적이 있다. 수개월이 지난 뒤, 놀고 있던 수찬이에게 물었다.

“수찬아 누가 수찬이를 만드셨지?”

수찬이가 대답하는 말.

“하나님이 가요.”

참로 붙여진 말이 웃음을 터뜨리게 했지만, 아이의 표정은 진지했고 분명했다. 아니 당연한 대답은 아니라는 표정이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부부는 둘 다 모태 신앙이 아니다. 창조주를 만나고 믿고 찬양할 수 있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존재의 질문 앞에서 고민했었기에 아이의 스런지처럼 흡수된 내 진리에 대한 고백은 우리 부부를 감동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뿐인가 교회학교에서 인형극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고 난 뒤부터는 가끔 이런 말을 한다.

“엄마! 마귀 믿으면 지옥 불 가구요,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가요.”

오! 주님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불평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깊고도 깊고, 넓고도 넓은 예수님사랑, 깊고도 깊고도, 깊고 넓은 예수님사랑.’

요즘 수찬이의 즐겨 부르는 찬양이다. 측량할 길 없는 깊고, 넓은 은혜 안에서 수찬이와 누나를 성장시키실 주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아이들을 고백하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 전임독창자 김소연
■ 단기선교사 강기엽 (소리광개)